

제1회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12일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수물민들을 위한 만남의 행사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행사는 수물민들에게 고향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리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지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약 25년 전 용담댐 건설을 위해 진안군 8개 읍·면 68개 마을과 1만2,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다. 함께 생활하였던 이웃들과 헤어지고, 농사를 짓던 농지와 산들은 용담호의 물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에 지난 2023년 12월 진안군의회



제1회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마옥 의원의 의원 발의를 통해 '진안군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이에 구성된 용담면 수물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매년 4월 두 번째 토요일 날을 만남의 날로 지정했으며 그 첫 행사가 올해 열리게 됐다.

행사는 수물민들을 위한 볼거리, 즐길 거리 등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상설 행사로 수물 당시 풍경과 사립을 담은 사진 전시가 열린다. 또한 고향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시골 장터에 가면 항상 들려오던 "뽕이요" 뽕밥집을 운영하고, 학창 시절 교복을 입어보고 사진에 담아 가져갈 수 있는 인생네컷과 명석에 각색이 옷놀이 코너 등 옛 시절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즐길 거리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더불어 동행한 가족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캐리커처 그리기, 페이스페인팅, 솜사탕 만들기 등이 운영되고, 마늘주막, 푸드트럭 등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했다. 특히 지역특산품과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된 많은 경품들도 준비해 수물민들에게 잊지 못할 행사로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생명수인 용담호 속에 담긴 추억을 다시 한번 꺼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사의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도로·철도 광역교통망 확충 주력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 한국도로공사·김천시 방문해 협력 제안

무주군이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8일에는 도로·철도 광역교통망 확충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최정일 부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은 이날 한국도로공사와 김천시를 차례로 방문해 '고속도로, 철도 및 국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상호 협력을 제안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계획 총괄 부서를 방문한 최정일 부군수는 전주~무주 간 고속도로(L=42km)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새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뒤통자칠 것을 요청했다.

무주~성주 간 고속도로(L=68.4km)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전타당성조사를 서둘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절차 이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정일 부군수는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 비해 열악한 동서축 교통망의



확충이 절실하다"라며 "상호 지원과 협력이 토대가 돼 영·호남 간 연결성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2036년 하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반드시 인접 광역권과의 연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천시에는 전주~김천(L=101.9km) 간 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쓸 것을 요청했다. 무주 무풍~김천 대역(국도 30호) 도로시설개량 사업 또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공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

전춘성 진안군수, 제이디엔지니어링 방문 현장행정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7일 진안 연장농공단지 소재 입주기업인 제이디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제이디엔지니어링은 현대중공업 퇴직자를 중심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진안공장은 2023년 12월 진안 연장농공단지 입주해 국내외 중량구조물 운송부품 제작 및 운송된 중량물을 인양, 운송하



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이다. 이 날 공장장은 "제이디엔지니어링

은 각종 ISO관련 인증 및 특허를 받은 전문 기술업체로 중량물을 인양 운송하는 기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고급기술"이라며 "최근에는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 차폐 중량물 이송 현장에 투입돼 작업 중"이라고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관내 농공단지에서 열심히 산업 활동에 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우수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방문하는 자리를 만들어 농공단지 내 기업가치의 연계방안은 물론 군 추진 주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협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사과 병해충 예방·방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무주군이 명품 반딧불 사과 생산을 위해 '사과 병해충 예방·방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8일 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집에서 열린 설명회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무주과수영농조합(대표 강만기)에서 진행한 것으로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1백여 명의 농업인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과수병해충 예방센터 장일 대표는 △최근 무주 기상 및 병해충 발생 현황, △최고품질의 과실 생산을 위한 재배 방법, △사과 주요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요령 등



을 공유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앞으로 병해충 예방 요원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상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고품질의 명품 사과 생산을 위한 병해충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농관원, 하계작물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북지원 무주사무소(소장 주순호, 이하 무주농관원)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포도 등 하계작물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농촌 관련 용자·보조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고, 수급 안정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

한 것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도 상당하다. 이에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에 대한 정기변경신고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번 4월부터 6월에는 전국 공통 대상 작물인 벼와 무주군 관내 주요재배 작물인 사과, 포도를 중점추진 품목으로 정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하계작물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 직불금 지급 시 10% 감액 패널티가 부과된다.

무주농관원 주순호 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재배품목이나 농지 등이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무주농관원 전화(063-322-6060) 또는 방문,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거리의 천사 故권호석씨 유족, 성금 500만원 기탁

장수군은 '거리의 천사'로 알려진 故권호석씨 유족(권오용씨)이 장수군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권호석씨는 지난 50여 년간 장수지역은 물론 전국을 누비며 쓰레기를 줌은 할아버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생전에 인과가 물리는 전국의 축제장과 행사장에 어김없이 나타나 환경보호를 몸소 실천했다.

이번 기탁은 부의금 일부를 기탁한 것으로 권호석씨 유족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고인의 평생 바램을 실현하는 의미



지난해 권호석씨 기탁 사진

를 담아 기부한다"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보호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권호석씨는 지난날 28일 향년 88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교육 훈련 개강

장수군은 8일 군청 전산실에서 '행정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개강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북광역여성새일센터(원장 전정희) 주관이며, 구인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훈련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교육은 취업의사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경력단절 여성 15명을 선발해 진행했으며 ITQ·한글 기초 및 실무활용, 파워포인트, 엑셀기초 및 실무활용 등 이론 수업과 함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근로기준법, 직업마인드 향상 등 취업에 필요한 직무소양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개강식과 동시에 여성청소년문화센터 2층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위한 맞춤형 취업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협력망회의'가 개최됐다.

여기에는 사무직 인력 채용이 필요한 5개 업체 일자리협력망 위원들이 참석해 관련분야 취업 활성화 및 취업처 확보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장수=고판호 기자

한동규 장수소방서장, 건설 현장·캠핑장 현장방문행정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7일 장수읍에 위치한 장수읍내체육관 건설현장과 장수누리캠핑장을 방문해 관서장 현장행정지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행정정은 봄철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화재 발생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해 현장방문행정정을 함으로써 화재 취약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화재예방 당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 확인 △공사장 관계자 안전장비 점검 △관계인 간담회 및 화재 위험요인 안전컨설팅 △누리캠핑장 현장점검 시설물 안전관리 확인 △소방차량 진입 및 소방시설 확인 △관계인 애로사항 청취 및 화재예방 당부 등이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